

일본 속의 제주인의 직종과 상공업 활동*

고 광 명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연구교수

E-mail : kkm0630@jejue.ac.kr

접수일 : 2006년 8월 21일, 수정완료일 : 2006년 9월 24일

【요약】 본 연구는 일본 속의 제주인의 직종을 파악하고 상공업 활동의 특성을 해명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일 제주인의 직종은 동경지역에서 음식업과 가방제조업, 대판지역에서 신발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직종은 재일 한인의 직종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주도 출신자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일 제주인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많은 북제주군 출신자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동경과 대판지역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일 제주인은 다른 회사형태에 비해 주식회사 형태로 상공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일 제주인은 재일 1세에 해당되는 연령이 많음을 알 수 있고, 특히 80대 이상의 제주인은 현재까지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재일 제주인은 신발, 가방, 플라스틱, 봉제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재일 제주인은 고학력을 가진 상공인을 중심으로 일본사회 속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재일 한인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제주사회와 재일 제주인사회의 생산적인 교류를 모색함은 물론 향후 한·일간의 발전적 관계증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핵심어】 재일 제주인, 재일 제주인사회, 직종, 상공업 활동, 제조업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B00012).

I. 머리말

2005년 말 현재 외국인등록 통계를 보면 재일(在日) 한인(韓人)의 총수는 63만2,405명으로 다른 외국인에 비해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재일 제주인은 10만7,666명으로서 전체의 17.02%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견디다 못해, 혹은 4·3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 대부분은 도쿄(東京)나 오사카(大阪) 등의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경에는 미카시마(三河島), 대판에는 이쿠노구(生野區)를 중심으로 재일 제주인의 커뮤니티(communitiy)를 형성하고 있다(高鮮徽, 1998: 19). 이처럼 재일 제주인은 한인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친목단체 등과 같은 비공식조직(informal organization)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지연, 학연, 혈연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속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 일본으로 도향한 재일 1세로서 지금까지 재일 제주인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기능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한류열풍과 남북한 화해무드로 인해 재일 한상(韓商)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주 초기에 차별과 핸디캡 등으로 야키니쿠(焼肉), 파친코, 토목·건축업 등에 주로 종사하였으나, 현재에는 무역, 금융, IT분야의 하이테크 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재일 한인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제주사회와 재일 제주인 사회의 생산적인 교류를 모색함은 물론 향후 한·일간의 발전적 관계증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본 연구는 濟民日報社(2004)가 재일 제주인의 개인이력서를 수록한 『濟州人名辭典(在日同胞篇)』 자료를 통하여 일본사회에서 활동하는 제주인의 직종 변화와 상공업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과제를 설정한 이유는 그 동안 남북간의 갈등문제, 재일 제주인 간의 빈부의 격차 등으로 인해 재일 제주상공인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재일 제주상공인들이 제주도 출신자로서 제주지역경제에 공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지역경영사 관점에서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일 제주인의 직종과 관련하여 상공업 활동을 파악하여 본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일 제주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재일 제주인의 직종 변화를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濟民日報社(2004)가 발간한 『濟州人名辭典(在日同胞篇)』에 수록되어 있는 재일 제주인을 대상으로 상공업 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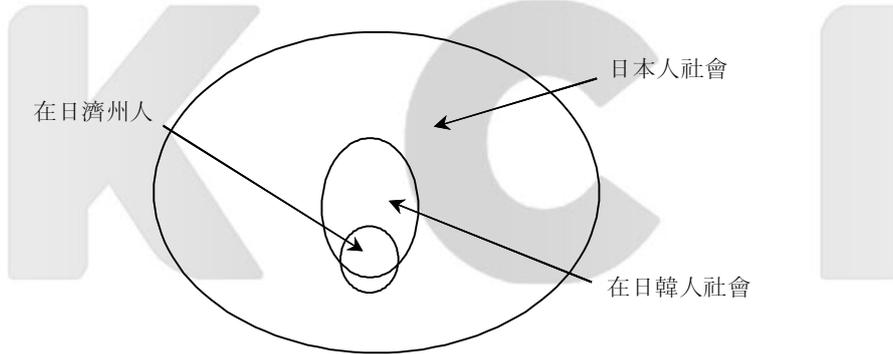
1. 在日 제주인의 의미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매우 다양하다. 즉 제주출신 재일동포, 제주출신 재일교포, 재일 제주출신자, 제주출신 재외교민, 교민사회 등등 이다. ‘재일(在日)’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시스템에 따른 한국이나 조선(북한)이라는 국적 표시인지, 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인지, 또는 역사나 문화에 얽힌 의식인지, 나아가서 재일 한인의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윤건차, 2002).

이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2000)에서는 제주인 개념을 범제주인으로 설정하고 범제주인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6개로 구분하고 있다. ① 본적지가 제주도이고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원도민, ② 본적지가 제주도이지만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도민, ③ 타 지역에서 출생하였지만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거주하는 타 지역출신의 제주인, ④ 교포 2·3세를 비롯한 제주인의 자녀, ⑤ 제주인의 배우자, ⑥ 제주도에서 공식생활을 하면서 제주도의 발전에 이바지한 명예도민 등이다. 이 범제주인의 개념에 따른다면, 재일 제주인은 본적지가 제주이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2, 3세 등)로 규정될 수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1980년 이전 도입하여 일본에 귀화한 자나 2세, 3세의 배우자 및 자녀들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재일 제주인의 놓여져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인사회 속에서 재일 한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본적지 지역출신자에 비해 제주도 출신자인 경우 강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이중구조 성격을 지니고 있다(<그림 1>). 예를 들면 1925년 이쿠노구(生野區)에는 다른 지역출신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인들은 이들로부터 ‘섬놈’이라는 이유로 멸시당하는 이중적 차별을 일본인사회에서 감수해야만 했다. 이들은 ‘아리랑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제주출신들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주인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력으로 지금의 재일 제주인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그림 1> 日本 속의 濟州人(二重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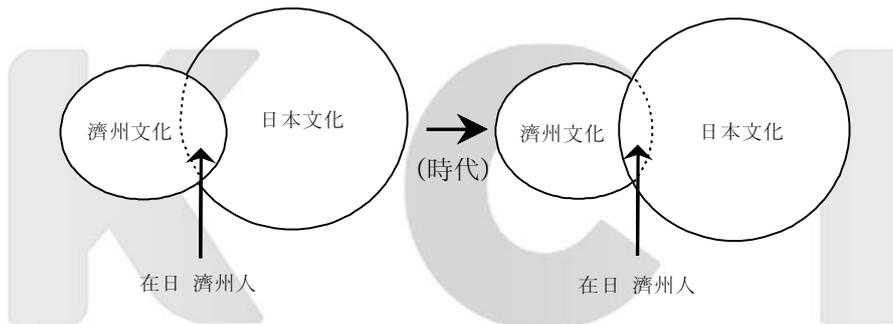


출처 : 양성중(2005: 205).

한편 제주도와 재일 제주인의 이면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과거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 제주인은 일본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제주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주문화를 의식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일본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하고 있다(<그림 2>). 그 원인은 해방 이후 60년 세월이 흐르면서 재일 한인사회의 세대교체도 착실히 진행되는데 있다. 현재의 세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1세 6%, 2세 37%, 3세 48%, 4·5세가 9%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재일 제주인사회도 현재 1세부터 2세, 나아가 3세, 4세로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고, 민족교육을 받는 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가운데 일본 국적 취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비로소 재일 제주인을 포함한 재일 한인은 국적이나 혈연, 의식 상태나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복잡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동전, 2005: 248~249). 또한 세대교체와 더불어 재일 젊은이들은 동포끼리의 결혼을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이 92% 정도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1985년 이래 부모양계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일본과 한국·조선의 이중국적 상태가 되며, 대부분의 자식들은 최종적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濟州島와 在日 濟州人(二面性)



출처 : 양성종(2005: 205).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의 제주인들은 1세가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재일 제주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2세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일본 속의 제주인사회를 보다 공고하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재일 제주인 3세도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서 일본사회에서 그들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이로 인해 재일 제주인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재일 제주인은 제주도 출신자로 일본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공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재일 제주상공인도 그 대부분이 생업을 위하여 상공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吳圭祥, 1992: 13).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전 비자발적, 강제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올드커머(oldcomer)인 재일 제주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1980년대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인해 공식적인 단기 방문비자를 받고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뉴커머(newcomer)와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0년 이후 유학, 단기체류, 기업가, 비합법적 노동자 등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한 뉴커머인 재일 제주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

2. 在日 제주인 관련 기존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 제주인의 직종을 파악하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상공업 활동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재일 제주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학문적 규명보다는 주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이문웅(1988, 1989, 1998)은 재일 제주인사회의 형성과 특성을 타지역출신의 재일 한인사회와의 비교 관점에서 관심을 가진 연구이다. 이외에 재일 제주인의 이주역사와 일본에서의 삶을 묘사한 연구로는 신행철(1997), 杉原 達(1998), 高鮮徽(1996, 1998), 유철인(2000)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현지조사와 참여관찰기법을 사용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지나치게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재일 제주인사회에 대한 피상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갖는다고 보아진다.

최근 한국에서 재외(在外) 한상을 중심으로 한 상공업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제주도 입장에서 재일 제주인의 직종과 상공업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재일 한인을

1) 1945년 해방 직후 재일 한인의 수는 약 220만 명 정도였으나 그 중 160만 명 정도가 귀국하고 남은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다. 이들은 미국 이민과는 달리 올드커머(oldcomer)는 해방 전후 강제적 이주, 뉴커머(newcomer)는 1980년대 전후 유학생, 취학생의 자발적 도일 등 역사적 배경이 다양하다. 이들을 통칭하여 재일 한인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일코리안(在日コリアン)’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용어는 재일 한국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포함한 ‘한인(韓人)’이라는 의미로 ‘귀화한 한국인’, ‘재일민단과 총련’, ‘뉴커머’ 등의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일코리안’이란 출생 장소, 이름, 국적에 관계없이 한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를 칭하는 용어로 정착하기 시작하고 있다. 林永彦(2004), 『韓国人企業家』, 長崎出版, 24~25쪽.

포함한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가 결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재일 제주인의 직종과 상공업 활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본론으로 들어가하고자 한다. 고동훈(1999, 2001)은 재일 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 분석에 대해 연구를 시도했다. 이 연구는 소규모이며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 제주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을 재일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고광명·진관훈(2004, 2005)은 關西濟州道民協會(2004)가 발간한 『關濟會10年の歩み』 목록자료를 이용하여 수집된 248명을 대상으로 관서지역의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되었으나 2차 자료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광명·진관훈(2006)은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특질을 해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주사회와 재일 제주인 사회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재일 제주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문화인류학, 민속, 역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경영학, 경제학적 접근은 그다지 많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일 제주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사회적 현상을 밝히기 위한 경영경제사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경영·경제학적 관점에서 재일 제주상공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 간의 연구의 공백을 메우려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Ⅲ. 재일 제주인의 인구와 직종

1. 재일 제주인의 인구

1911년 12월 말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관 소장(警視廳, 「調査二保 清

國人 朝鮮人及革命黨關係者調」, 明治 45년 1월 23일 접수)의 문건에 의하면 출신지역별 인구수는 경상남도가 440명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161명, 경기도 135명 순으로 나타났지만 제주인은 50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양영후, 2005: 15~16). 또한 <표 1>은 해방 이전 일본도항의 변칙형태인 전시강제동원이 시작되기 전년도인 1938년과 한일간 국교를 정식으로 수립하여 한국으로부터 신규입국이 증가하기 전년도인 1964년을 선택하여, 그 시점에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본적지별 인구수를 살펴본 것이다(김영달, 2003: 110~112). 1964년도 전체 한인 총수는 578,572명으로 이 가운데 경상도 출신자가 367,441명으로 64% 정도를 차지하였고, 제주도 출신자인 경우도 86,490명인 14.9%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재일 한인의 본적지별 구성 현황(1911년, 1928년, 1964년)
(단위 : 명, %)

1911년		본 적	1938년		1964년	
본 적	명		명	%	명	%
경상남도	440	경상도	484,814	61	367,441	64
경상북도	161	전라도	213,983	27	158,044	27
경기도	135	제주도			(86,490)	(14.9)
전라남도	35	충청도	51,275	6	24,190	4
제주도	50	경기도	14,433	2	9,550	2
전라북도	12	강원도	8,312	1	5,715	1
충청남도	11	황해도	5,643	0.7	1,905	0.3
충청북도	11	평안도	12,490	2	3,313	0.6
평안남도	9	함경도	8,928	1	2,827	0.5
		양강도·자강도			68	0.01
		불 명			5,519	1
총 수	864	총 수	799,878	100	578,572	100

출처 : 金英達(2003: 112).

이후 法務省(1974)이 발간한 『在留外國人統計』에 따르면 1974년 말 재일 한인 인구는 총 63만8,806명으로 경상북도 24만6,638명(38.6%), 경상남도 15만6,683명(24.8%), 제주도 10만1,378명(19.9%), 전라남도 6만1,423

명(9.6%) 등 4개도가 88.9%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제일 한인 전체 중에서 경상남북도만으로도 절반이 넘는 6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2>). 거주지역별로 보면 오사카인 경우는 제주도가 63,972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49,811명, 경상북도 30,619명, 전라남도 21,590명 순이다.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의 출신자가 일본 각지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데 반해, 제주도 출신자는 그 총수의 10만 여명 가운데 오사카 63.9%, 도쿄 19.6%로 합계 83.5%가 오사카와 도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사카에 제주도 출신자가 많은 것은 일제시기 오사카와 제주도와의 사이에 직항항로가 열려 있어서 정기편인 군대환(君代丸)이 운항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고성중, 2005: 84).

<표 2> 제일 한인의 출신지·거주지역별 구성 현황(1974년 말)

(단위 : 명)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 주 도	총 수
大 阪 府	49,811	30,619	21,590	63,972	178,720
東 京 都	19,924	14,221	7,227	19,785	74,413
兵 庫 懸	34,087	16,312	4,924	5,375	67,044
愛 知 懸	25,987	17,377	4,391	607	53,657
京 都 府	21,824	13,477	2,634	1,506	43,881
神 奈 川 懸	11,567	8,781	2,188	2,076	29,569
福 岡 懸	11,492	8,636	2,151	310	25,786
총 수	246,638	158,683	61,423	101,378	638,806

출처 : 法務省編(1974).

한편 2005년도 현재 시점에서 제일 한인 총수는 63만2,405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경상남도 19만1,293명(30.25%), 경상북도 13만7,727명(21.78%) 등의 출신자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표 3>). 그 중에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제일 제주인은 2005년 기준으로 10만7,666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이는 제일 한인 총수의 17.02% 정도를 차지한다.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귀화자를 포함하면 제일 제주인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제주도 인구가 전국 인구의 1%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제일 한

인사회에서 제일 제주인들의 중요성과 활약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일 제주인들은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역과 대판을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에만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관서지역에는 제일 제주인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주로 대판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판의 이쿠노구(生野區)는 제주도 출신들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일본 속의 제주’라고 일컬어지며, 츠루하시(鶴橋) 옆의 모모타니(桃谷)에는 ‘코리아 타운(Korea Town)’이라 불리는 곳에 제일 제주인들이 운영하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표 3> 제일 한인의 본적지별 구성 현황(2005년 현재)

(단위 : 명, %)

본 적	명	%	본 적	명	%
서울시	53,242	8.42	전북도	11,302	1.79
부산시	24,038	3.80	경남도	191,293	30.25
광주시	1,897	0.30	경북도	137,727	21.78
대전시	1,550	0.25	강원도	4,606	0.73
경기도	21,380	3.38	제주도	107,666	17.02
충남도	11,829	1.87	북 한	3,373	0.53
충북도	10,031	1.59	기타(미상 포함)	7,110	1.12
전남도	45,361	7.17	총 수	632,405	100

자료 : 재일본대한민국민단본국사무소(2005).

2. 제일 제주인의 직종

제주도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직공(職工) 모집에 응하면서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杉原 達, 1998). 1920년대 당시 제일 제주인의 직업분포는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면서 10년이 지난 시기이지만 제주인의 직종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육체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부문, 더욱이 일본인 노동자들이 싫어하는 여러 산업부문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일 제주인의 절대 다수가

방적공장, 고무공장, 제유공장 등의 공원(工員) 외에, 토목하청, 하숙, 미싱공장, 가방제조(製鞆) 등 일본산업의 최하위층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다. 그 후 작업 내용이 점차적으로 가방제조업 관련 분야로 집중하게 되면서 직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제주출신자는 ‘가방제조의 ○○리’, ‘신발제조의 ○○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출신지역마다 특정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다(李仁子, 2004: 7). 이 외에 상업, 고물상, 운수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였던 제주인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사실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4>는 재일 제주인의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 고내리(高內里) 친목회 회원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고내리 출신자를 선정한 것은 전전(戰前)부터 고향 친목회가 처음으로 형성되어 전후(戰後)에도 고향에 대해 많은 기부를 하는 등 고내리라는 지연을 주축으로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가방제조업이라는 특정의 직업에 많은 사람이 종사하여 그로 인해 일본사회 속에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던 것이다(滝沢健次, 2004: 18).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86년에는 고내리 출신자가 가방제조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반면 1996년에 들면서 가방제조업 종사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6년 가방제조업에 종사한 고내리 제주인은 전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반해 1996년에는 오히려 16%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임원, 자영업,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제주인 중에서 가방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재단업, 봉제업 종사자 등도 가방제조업 관련 산업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것보다 약간 많다고 여겨진다. 가방제조와 관련된 연령 구성을 보면 대부분 40대 후반 이상의 재일 1세대가 중심이 되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20대, 30대의 2세, 3세대 층은 상당히 적은 전체의 10% 이하가 되고 있다. 반면 회사원의 비율은 42%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2세, 3세의 젊은 세대가 이미 가방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4> 제주도 高内里 친목회 회원의 직업별 내역

(단위 : 명, %)

	1986년도		1996년도	
	명	%	명	%
가방제조	111	28.5	72	16.2
회 사 원	127	32.6	191	43.0
회사임원	23	5.9	58	13.0
서비스업	50	12.9	37	8.3
자 영 업	48	12.3	22	5.0
의 사	5	1.3	11	2.5
유 기 업	4	1.0	3	0.7
학 생	15	3.9	12	2.7
기 타	5	1.3	38	8.6
총 수	388	100	444	100

자료 : 在日本高内里親睦會(1986, 1996).

이처럼 재일 제주인은 일본에서의 사회구조적 차별 때문에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고 이주 초기에는 주로 가방제조, 신발제조, 자갈이나 고철수집 등 최하위 일일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상호단결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자본을 축척하게 된 재일 제주인들은 맨 처음으로 시작한 업종이 야키니쿠(焼肉)²⁾와 파친코³⁾, 토목·건축업 등 일본인들이 싫어하는 3D업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파친코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이 차별하는 3D업종의 하나로 재일 제주인을 포함한 한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야키니쿠

2) 日本通産省(1992)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1년도 야키니쿠점포 수는 약 1만7천300개, 매출총액은 5천300억 엔에 달했다고 한다. 1998년 통계에서는 점포수가 2만50개 점포로 증가했으나 2001년 광우병 파동 이후 점포 수나 매출액이 격감하여 최근 다시 안정화 추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日本通産省(1992), 『商業統計續報』. 總務府統計局(1998), 『事業所統計調査報告』.

3) 在日韓国人商工会議所(1997)의 발표에 따르면 재일 한인의 민족기간 산업이라고 불리는 파친코산업의 연간매출액은 30조 엔에 달하고 있다. 그 중 70%를 재일 한인상공인이 경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총액은 약 20조 엔에 달하여 이는 일본 GDP의 3%에 해당하는 숫자인 것이다. 在日韓国人商工会議所(1997), 『在日韓国人会社名鑑』.

와 파친코산업은 1990년 후반에 들어 한때 호황을 누리면서 직종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⁴⁾.

<표 5>는 일본 속의 한인과 제주도 출신자의 업종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제일 한인의 업종을 보면 오락업의 비율이 1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14.5%, 서비스업 13.02%, 제조업 12.11%, 음식업 11.8%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반면 제주도 출신자의 경우 동경지역의 업종 분포를 보면 음식업이 27%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방제조업의 21%보다 다소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신발제조업 16%, 오락업 15%, 음식업 10%, 기타 11%로 전체 제일 한인의 업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대관지역의 업종분포를 보더라도 신발제조업이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음식업의 17%보다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 오락업 17%, 건설업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면 1980년 이전 일본으로 이주한 제일 제주인은 거의 제일 1세들에 의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음식업과 가방제조업, 신발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제일 제주인들은 제일 1세들이 가족들에게 경영권을 계승하고 제2선으로 물러나면서 지금은 제일 2세, 3세들이 전면에 나서 상공업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결국 제일 제주인들은 이주 초기에 차별과 핸디캡으로 인해 주로 야키니쿠(焼肉), 파칭코, 토목·건축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현재에도 상당수의 이들은 여전히 영세적인 도태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제일 제주인의 봉급생활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이들의 직종에 대한 다양한 추세가 보이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4) 入管協會(1999)에 따르면 제일 한인상공인이 차지하는 자영업 비율은 60%로 여전히 높았으나 1974년과 1984년 통계보다는 약간 감소했다. 세금신고의 업종별 비율을 보면 회사원 비율이 1999년 30.7%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일 3·4세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한 직종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파친코 산업이나 야키니쿠는 1995년 이후 세금비율이 증가했으나 그 외의 업종은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入管協會(1999), 『在留外國人統計』. 日本統計國(2002), 『國稅調査』.

<표 5> 일본 속의 한인과 제주도 출신자의 업종 분포

(단위 : 수, %)

한인	업종	부동산	전문서비스	제조업	도소매	음식업	오락업	건설업	금융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수	984	449	1,150	832	1,121	1,816	1,380	285	1,236	241	9,494
비율	10.36	4.73	12.11	8.76	11.81	19.13	14.54	3.00	13.02	2.54	100	
제주	동경	업종	신발제조업	가방제조업	봉제업	음식업	오락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비율	16	21	-	27	15	-	10	11	100	
	대판	업종	신발제조업	플라스틱제조업	봉제업	음식업	오락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비율	20	7	10	17	17	15	4	17	100	

資料 : 在日韓国人商工会議所(1997), 高東勳(2001).

IV.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濟民日報社(2004)가 발간한 『濟州人名辭典』의 在日同胞篇에 수록된 회원명단을 기본적인 원(元) 자료(raw data)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재일 제주인의 개인이력서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관련된 기본정보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통계자료는 濟民日報社(2004)가 발간한 『濟州人名辭典(在日同胞篇)』에 수록되어 있는 재일 제주상공인 209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집계 분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연령별/지역별, 연령별/학력별, 연령별/업종별, 지역별/회사형태별, 지역별/업종별로 나누어 교차분석(cross tab)을 이용하여 표작업을 실시하였다.

2. 연구표본

<표 6>에서 제시된 연구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60대가 37.4%,

70대가 30.6%, 80대 이상이 19.4%, 50대와 40대 이하가 각각 11.2%와 0.7%였다. 출신지역별은 북제주군이 47.8%, 제주시가 21.5%, 남제주군이 16.7%, 서귀포시가 13.9%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오사카가 68.9%로 가장 많고, 동경 19.1%, 효고현 5.7%, 지바현 1.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 20.1%, 중졸 이하 7.7%로 분포하고 있었다. 회사형태는 주식회사가 5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개인 19.1%, 유한회사 11.5%, 공업소 11.0%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이 49.3%로 전체 업종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판매 20.1% 서비스 9.6%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표 6> 연구표본의 특성

(단위 : 명, %)

구분	변수	빈도	%	구분	변수	빈도	%
연령	80대 이상	40	19.4	학력	중졸 이하	16	7.7
	70대	63	30.6		고졸	42	20.1
	60대	77	37.4		전문학교	12	5.7
	50대	23	11.2		대졸	93	44.5
	40대 이하	3	0.7		불명	46	22.0
	불명	3	0.7		개인	40	19.1
출신 지역	남제주군	35	16.7	회사 형태	공업소	23	11.0
	북제주군	100	47.8		유한회사	24	11.5
	서귀포시	29	13.9		주식회사	122	58.4
	제주시	45	21.5		건설업	9	4.3
거주 지역	오사카	144	68.9	업종	제조업	103	49.3
	동경	40	19.1		판매업	42	20.1
	효고현	12	5.7		음식업	10	4.8
	지바현	4	1.9		서비스업	20	9.6
	기타	9	4.3		기타	25	12.0

3.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

1) 연령별 · 출신지역별 분포

<표 7>에서 연령별에 따른 출신지역 분포를 보면 북제주군 출신자들이 전체 표본의 48.1%임을 감안할 때, 80대 이상과 70대인 경우는 북제주군 출신 비율이 48.1% 이하인 40.0%와 36.5%였으나, 60대와 50대 이하인 경우는 59.7%와 53.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70대, 80대인 경우 제주도 4개 시·군 지역의 출신지역별 분포가 50대 및 60대의 출신지역 분포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등의 이주요인으로 인해 많은 60대 이상의 북제주군 출신자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동경과 대관지역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연령별 · 출신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출신지역별				전체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		
연령별	80대 이상	빈도	8	16	7	9	40
		%	20.0	40.0	17.5	22.5	100.0
	70대	빈도	13	23	13	14	63
		%	20.6	36.5	20.6	22.2	100.0
	60대	빈도	7	46	8	16	77
		%	9.1	59.7	10.4	20.8	100.0
	50대 이하	빈도	5	14	1	6	26
		%	19.2	53.8	3.8	23.1	100.0
전체	빈도	33	99	29	45	206	
	%	16.0	48.1	14.1	21.8	100.0	

2) 연령별 · 학력별 분포

<표 8>에서 연령별에 따른 학력 분포를 보면 80대 이상인 경우,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 고졸, 전문학교, 대졸 학력간 비율 분포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70대인 경우는 60대나 50대 이하 보다 대졸(70대 57.1%, 60대 42.9%, 50대 이하 50.0%)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인 경우 고졸 출신 비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 출신자로서 제일 제주인 1세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아직도 많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진 제주상공인들이 상공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연령별 ·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학 력 별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학교	대졸	불명		
연령별	80대 이상	빈도	6	6	4	10	14	40
		%	15.0	15.0	10.0	25.0	35.0	100.0
	70대	빈도	5	7	4	36	11	63
		%	7.9	11.1	6.3	57.1	17.5	100.0
	60대	빈도	5	25	1	33	13	77
		%	6.5	32.5	1.3	42.9	16.9	100.0
	50대 이하	빈도		4	3	13	6	26
		%		15.4	11.5	50.0	23.1	100.0
	전체	빈도	16	42	12	92	44	206
		%	7.8	20.4	5.8	44.7	21.4	100.0

3) 연령별 · 업종별 분포

<표 9>에서 연령별에 따른 업종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전체 표본의 49%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80대와 70대는 이 전체 표본의 비율보다 높은 57.5%와 58.7%를 각각 나타내고 있으나, 60대의 제조업 종사 비율은 42.9%, 50대 이하는 30.8%로 전체 평균 비율(49%)보다 낮은 분포를 볼 수 있다. 50대 이하인 경우 제조업보다 판매업(34.6%)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고, 80대인 경우는 서비스업 비율이 17.5%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사항이다. 따라서 제일 제주인은 60대 이상으로 제조업 등에서 가장 많은 상공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80대 이상이 40명으로 나타난 것은 후계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표 9> 연령별·업종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업종별						전체	
		건설업	제조업	판매업	음식업	서비스	기타		
연령별	80대 이상	빈도	-	23	5	2	7	3	40
		%	-	57.5	12.5	5.0	17.5	7.5	100.0
	70대	빈도	2	37	10	2	5	7	63
		%	3.2	58.7	15.9	3.2	7.9	11.1	100.0
	60대	빈도	4	33	18	5	6	11	77
		%	5.2	42.9	23.4	6.5	7.8	14.3	100.0
	50대 이하	빈도	3	8	9	1	2	3	26
		%	11.5	30.8	34.6	3.8	7.7	11.5	100.0
	전체	빈도	9	101	42	10	20	24	206
		%	4.4	49.0	20.4	4.9	9.7	11.7	100.0

4) 출신지역별·회사형태별 분포

재일 제주인의 회사형태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회사를 포함한 자영업, 개인상점까지를 말한다. 이들 상공인 중에는 수백 명을 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 혼자이거나 혹은 가족 종사자만으로 경영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표 10>에서 출신지역별에 따른 회사설립 형태를 보면 남제주군 출신자인 경우, 주식회사(60.0%), 공업소(20.0%), 개인(17.1%) 순이었고, 북제주군 출신자는 주식회사(58.0%), 개인(24.0%), 유한회사(1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귀포시 출신자는 주식회사(65.5%), 공업소(13.8%), 개인·유한회사(각각 10.3%) 순이며, 제주시 출신자는 주식회사(53.3%), 유한회사(22.2%), 개인(15.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일 제주인은 수백 명 규모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주식시장에 상장해도 손색이 없는 경영자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지역에서 4~5명 정도 작은 공간에서 영업하는 상점주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출신지역별 · 회사형태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회사형태별				전 체
			개인	공업소	유한회사	주식회사	
출신지역별	남제주군	빈도	6	7	1	21	35
		%	17.1	20.0	2.9	60.0	100.0
	북제주군	빈도	24	8	10	58	100
		%	24.0	8.0	10.0	58.0	100.0
	서귀포시	빈도	3	4	3	19	29
		%	10.3	13.8	10.3	65.5	100.0
	제주시	빈도	7	4	10	24	45
		%	15.6	8.9	22.2	53.3	100.0
전체	빈도	40	23	24	122	209	
	%	19.1	11.0	11.5	58.4	100.0	

5) 출신지역별 · 업종별 분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제일 제주인이 경영하는 상공업 대부분은 일본의 기업형태 분류상 중소기업에 속하기 보다는 영세상공업에 포함되어 있다. 영세상공업은 생업을 위한 상공업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상공인 중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익, 이윤을 얻기 위하여 상공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종업원 수에서는 10명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소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고 이들 대부분이 일본 중소기업의 하청에 속하는 영세상공인이라 할 수 있다.

<표 11>에서 출신지역별에 따른 업종 분포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49.3%임을 감안할 때, 남제주군 출신자인 경우는 제조업이 62.9%, 판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4.3%로 나타났다. 북제주군 출신자인 경우는 제조업이 35.0%, 판매업이 28%, 기타가 14.0%였으며, 서귀포시 출신자인 경우도 제조업이 86.2%로 다른 지역 출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제주시 출신자인 경우도 제조업 46.7%, 판매업 17.8%, 기타 15.6%,

서비스업 11.1%로 다른 지역출신과 동일한 분포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일 제주인은 신발, 가방, 플라스틱, 봉제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출신지역별 · 업종별 분포

(단위 : 명, %)

구 분			업 종 별						전체
			건설업	제조업	판매업	음식업	서비스	기타	
출신 지역별	남제주군	빈도	-	22	5	-	5	3	35
		%	-	62.9	14.3	-	14.3	8.6	100.0
	북제주군	빈도	7	35	28	7	9	14	100
		%	7.0	35.0	28.0	7.0	9.0	14.0	100.0
	서귀포시	빈도	1	25	1	-	1	1	29
		%	3.4	86.2	3.4	-	3.4	3.4	100.0
	제주시	빈도	1	21	8	3	5	7	45
		%	2.2	46.7	17.8	6.7	11.1	15.6	100.0
전체	빈도	9	103	42	10	20	25	209	
	%	4.3	49.3	20.1	4.8	9.6	12.0	100.0	

V. 맺음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재일 제주인의 직종과 상공업 활동을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재일 제주인을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확장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주제들이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 제주인의 직종은 동경지역에서 음식업과 가방제조업, 대관지역에서 신발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직종은 재일 한인의 직종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주도 출신자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일 제주인은 정치

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많은 북제주군 출신자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동경과 대판지역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일 제주인은 다른 회사형태에 비해 주식회사 형태로 상공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일 제주인은 재일 1세에 해당되는 연령이 많음을 알 수 있고, 특히 80대 이상의 제주인은 현재까지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재일 제주인은 신발, 가방, 플라스틱, 봉제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재일 제주인은 고학력을 가진 상공인을 중심으로 일본사회 속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재일 제주인의 직종과 관련하여 상공업 활동에서 나타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 속의 제주인들은 일본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의 변화, 직종의 다양화, 국제경제의 변화 등에 의한 버블경제라는 틀 속에서 경제적 번영과 쇠퇴라는 커다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제주인의 생활, 직종, 상공업 활동이 점차적으로 변용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재일 제주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신발공장, 고무공장 등 제조업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기계설비, 조선업, 관광업 등에서 일본인 회사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재일 한상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재일 한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재일 제주인을 포함한 한인의 상공업 활동도 크게 다양해지고 점차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재일 한상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해외 한인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들에게는 일본사회 속에서 제주인의 직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재일 제주인의 삶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사회 속에서 제주인들은 재일 2세, 3세가 독자적으로 상공업 활동을 영위한 경우도 다소 있었

지만, 대부분 1세들이 가족주의 경영을 통하여 경영권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혈연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속의 제주인들은 일본에서의 사회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나름대로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으로 이주한 한인 중에서 제주도 출신자가 비교적 높게 차지하였던 것은 정치적, 경제적 등으로 인해 이주한 요인도 있었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적 특수성이 비교적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 기초통계 자료가 부족한 시점에서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을 고찰하였다는 것은 일본사회 속에서 제주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기존의 경험적 자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濟民日報社(2004)가 발간한 『濟州人名辭典(在日同胞篇)』에 수록되어 있는 목록자료를 가지고 전개하였으므로 자료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다른 지역간의 상공업 활동의 비교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시키면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상공업 활동과 관련된 5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속의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 특성에 대해서도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고,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구조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전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본 속의 제주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지역출신의 한인 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제주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밀화하면서 1980년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일본 속의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 姜在彦 지음·고성중 옮김(2005), 『재일 한인의 갈등과 도전』, 제주: 북
제주문화원.
- 고광명(2005), “在日 한국·제주상공인의 실태에 관한 연구”, 『在日 제주
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KAL호텔: 제주발전연구원 외.
- 고광명·진관훈(2004), “在日 제주인의 상공업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
도연구』, 26(1): 57~90.
-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14(1): 148~181.
- 김동전(2005), “在日 ‘濟州人’사회의 형성과정과 변천, 그리고 미래”, 『在
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KAL호텔: 제주발전연구원 외.
- 신행철(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제주도연
구』, 14, 53~80.
- 양성중(2005), “在日 濟州人 研究의 現況”,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
도』, 제주KAL호텔: 제주발전연구원 외.
- 양영후(2005), “1920~30년대의 在大阪 제주인”,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
주도』, 제주KAL호텔: 제주발전연구원 외.
- 유철인(2000), “제주 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일본”, 『한국문화인류학』,
33(2), 361~378.
- 윤건차(2002), “21세기를 향한 재일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
와 재일동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문웅(1998), “재일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 『한국 인류
학의 성과와 전망』, 서울: 집문당.
- 이문웅(1988),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제주도연구』, 5,
51~58.
- 이문웅(1989), “재일 제주인 사회에서의 무속 : 대판 이쿠노구 지역을 중
심으로”, 『제주도연구』, 6, 79~87.
- 제주발전연구원(2000), 『100만 제주인의 사회적 통합 증진과 역량극대화
방안 연구』.
- 재일본대한민국민단본국사무소(2005), 『민단소개-재일동포소개』.

- 高東勲(1999), “在日韓国人の經濟活動に関する史的 분석研究 : 濟州島出身者の場合を中心として”, 『論文集』, 5号。
- 高東勲(2001), “濟州島出身者の日本移住に関する研究”, 『漢拏山』, 8.
- 高鮮徽(1998), 『20世紀の滞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東京: 明石書店。
-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 關東地方を中心に』, 東京: 新幹社。
- 金英達(2003), 『在日朝鮮人の歴史』, 東京: 明石書店。
- 李仁子(2004), “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つきあいの変遷”,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東京: 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 林永彦(2004), 『韓国人企業家』, 東京: 長崎出版。
- 杉原 達(1998), 『越境する民 : 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 東京: 新幹社。
- 吳圭祥(1992), 『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 東京: 雄山閣。
- 法務省(1974), 『在留外國人統計』.
- 日本統計院(2002), 『國稅調査』.
- 日本通産省(1992), 『商業統計續報』.
- 入管協會(1999), 『在留外國人統計』.
- 在日韓国人商工会議所(1997), 『在日韓国人会社名鑑』.
- 在日本高内里親睦會(1986, 1996), 『在日本高内里親睦會會員名簿』.
- 濟民日報社(2004), 『濟州人名辭典(在日同胞篇)』.
- 總務府統計局(1998), 『事業所統計調査報告』.
- 滝沢健次(2004), “在日高内里出身者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そのコミュニティ形成史を中心に”,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東京: 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 関西濟州道民協會(2004), 『関済会10年の歩み』.

A Study on the Occupation and Commerce Industry Activity of Jejuian Residents in Japan

Ko, Kwang-Myong

The Institute of Elementar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mmerce and industry activities of Jejuian residents in Japan grasp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ir administration and specific characters. In view of the result of this study so far achieved gives an outline of ; the category of business of Jejuian resident in Tokyo have a majority in the section of restaurant business and bag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 the section of shoes manufacturing industry, restaurant business and construction in Osaka. However, these categorie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the categories of Korean(or Chosun) resident in Japan but it shows that is the basi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result to lead that looking forward both Jeju community and Jejuian resident community in Japan as well as Japan society will promote expansive exchange among them. This is applied to comprehend specific characters of Jejuian merchants and industrial in Japan and grope appropriate way of their activities by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m.

Key Words Jejuian resident in Japan, Jejuian resident community in Japan, occupation, commerce and industry activities, manufacturing industry